

예술기관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치유의 힘’ 발전 모색

ACC 세미나, 5일 문화정보원…정서회복·돌봄 등 주제

박물관·미술관 동향 공유·시연 ‘포용적 역할’ 확장 기대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5일 문화정보원(문화교육실4·5, 강의실2)에서 정서회복, 약자동행, 돌봄을 주제로 한 ‘ACC 문화예술교육 세미나-소장자원을 활용한 뮤지엄 기반 예술힐링교육 현장의 방향’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ACC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박물관협회(ICOM) 등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분야 동향을 반영, 현장에서 쌓은 연구성과와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ACC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민의 정서회복을 지원하는 ‘ACC 문화예술힐링교육’을 총 102회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1237명(교구제 배포 7150부)이 참여했다. ‘ACC 문화예술힐

링교육’은 ACC가 보유한 공공미술작품을 활용해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쓰기, 접하기, 구성하기, 표현하기, 상상하기, 탐색하기)을 진행한 후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ACC를 비롯한 국내 문화예술기관은 정서회복 외에도 약자동행, 돌봄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술기관의 교육담당자, 예술가, 연구자를 초청해 예술이 갖는 치유와 회복의 힘에 대해 심리학적, 예술적,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재연 교수(고려대 심리학부)의 ‘예술을 마주할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주제강의로 시작된다. 김 교수는 서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5일 문화교육실4·5, 강의실2에서 정서회복, 약자동행, 돌봄을 주제로 한 ‘ACC 문화예술교육 세미나-소장자원을 활용한 뮤지엄 기반 예술힐링교육 현장의 방향’을 진행한다. 사진은 ACC아시아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워크숍 모습.

대에서 미학과 인지과학을, 미국 펜더빌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예술심리 연구자로, 우리의 뇌가 시각, 움직임, 정서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취향

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신경미학 연구를 통해 설명한다. 이어 ACC의 공공미술작품 ‘Heavenly Heaven (2015)’의 최정화(크리스탈)

작가가 다나다너다툼의 아이와 함께 ‘예술이 가진 치유와 회복의 힘’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작품과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예술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국립박물관단지, 수원시립미술관, 양주시립미술관, 제주문화예술재단, 한기미술관의 교육 담당자들이 참여한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사례발표는 각 기관 교육 담당자의 발표와 대표 프로그램 시연으로 구성돼 있다. 강연과 토크는 공통 과정으로, 기관 사례는 선택 과정으로 운영한다.

ACC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 교육담당자와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가 정서회복, 약자동행, 돌봄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사회적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기관의 포용적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욱 전당장은 “치유와 회복, 공존의 가치를 예술교육 현장에 심어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문화예술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앞장서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광주시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 발표회’가 지난달 31일 전통문화관 무형유산 전수관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전시실에서 최영자 남도의례음식장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전통 장인·예인 전승…빛나는 무형유산 ‘한 자리’

기능보유자 전시 6일까지 전통문화관…12월 7일 합동공연도

‘2025 광주시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 발표회’가 지난달 31일 전통문화관 무형유산 전수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 무형유산 기능 및 예능 보유자들이 그간의 전승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전통문화관 1층 무형유산 작품전시실에서는 악기장·대목장·탱화장·남도의례음식장 등 11명의 기능보유자(필장 안영환, 문상호, 악기장 이훈봉, 이준수, 화류소목장 조기중, 소목장(장호) 임종철, 남도의례 음식장 최영자, 이예선, 민경숙, 대목

장 박영근, 탱화장 송광무)의 야경과 가야금, 창호, 탱화, 음식 등 작품이 전시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통 장인의 정성과 기술이 깃든 작품들은 오는 6일까지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전순희 광주시청 문화유산자원과장,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을 비롯해 무형유산 보유자, 관계자, 시민 등 다수가 참석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함께 공유했다.

전순희 과장은 “무형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미래를 잇는 문화의 힘”이라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시민들이 광주의 전통예술을 보다 가까이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7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는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및 기·전수자들이 참여하는 ‘예능보유자 합동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가야금병창, 시조창 등 전통예능의 진수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춘향가’·‘심청가’·‘흥보가’·‘남도민요’ 등으로 채워진다.

공연 진행은 김혜정 교수(문화재청 무형유산 전문위원, 경기교육대학교)가 맡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명인(남도판소리 보유자 이순자, 김선아, 최연자, 판소리 강산재 보유자 이임례, 판소리 춘향가(동초제) 보유자 방성춘, 가야금병창 보유자 문명자, 이영애, 황승욱)이 출연해 깊이 있는 무대로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비단의 질감 살린 ‘추상회화 같은 신작들’

신진작가상 수상자 박진주 개인전

내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서 선행

2024년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박진주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전시는 지난 10월 17일 개막, 오는 4일까지 ‘Out of Body : 희미한 제자리’라는 주제로 열린다. 출품작은 총 40여점.

비단결 위에 실결을 옮기는 회화 작업을 이어온 박 작가는 자신의 피부에 남은 상처와 명, 타투, 피어싱의 흔적을 활용해 회화로 옮겨 신체, 특히 ‘피부’가 다채로운 회화의 소재이자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에게 피부는 외부와의 경계를 이루는 막이자, 자신을 감추고 동시에 드러내는 매개로 읽힌다. 피부의 이런 양면성은 자신을 숨기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드러내고자 했던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 내면과 외부의 관계로 탐구를 확장해 나가는 시각적 언어가 된다.

‘Out of Body: 희미한 제자리’전은 작가가 천착

해온 피부 연작을 종합하는 전시이자 앞으로의 변화를 미리 엿볼 기회로, 작가는 전통 동양화의 재료를 바탕으로 하되, 바탕재를 처리하는 포수와 배접 과정을 생략해 비단 특유의 투명성을 강조한 회화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처럼 디테일 하진 않지만, 변질 기법으로 표현한 연하고 부드러운 질감은 비단의 물성과 어우러져 실제 같은 피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포착하며 독특한 거리감을 만들어 냈던 기존 작업들과 함께, 이미지를 더욱 확대해 명 자국이 마치 추상회화처럼 보이는 신작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작업을 단순히 벽에 거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거나 바닥에 설치함으로써 비단의 질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출 방법을 시도하며 전시의 다채로움을 더한다.

박진주 작가는 “그림을 지행하는 틀과 비단 표면 사이에 형성된 거리를 활용해 이미지를 보다 감각적이고, 신비롭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독특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그늘진 온기’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6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2일 막을 내렸다. 사진은 비엔날레 광장에 관람객들이 모여 있는 모습.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포용 디자인과 삶 제시

65일간 4만5000명 방문…19개국 429명 참가 84개 기관 참여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6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2일 막을 내렸다.

2일(제)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에 따르면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타이틀로 지난 8월 30일 개막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2일 폐막했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19개국 429명의 작가와 84개 기관이 163점의 작품을 선보인 가운데 4만5000명(유료관람객 기준)이 전시장을 찾았다.

본전시 외에도 개막식에서 발표된 광주 포용디

자인 매니페스토, 국제 심포지엄,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 광주 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관람객 중 39.4%는 가족과, 29.5%는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고, 17.5%는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했다. 전체 관람객 중 10%를 차지하는 단체 관람객은 특히 전시 마지막 주간에 집중됐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28.1%), 디자인에 대한 관심(23.6%)이 관람 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포용 디자인의 동시대적 메

시지에 공감한 관람객들의 전시 추천이 관람 선순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시관 별 만족도에서는 2전시관 ‘포용디자인과 삶’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치·문화계 인사들도 발걸음을 보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월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9월12일 전시관을 방문해 ‘디자인 예술의 혁신과 포용!’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디자인 모델로는 광주 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 결과물이 올해 광주송정역에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윤범모 대표이사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동시대에 던진 유의미한 화두, ‘포용’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전시였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